보 도 설 명 자 료
('23. 3. 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여수·광양 산단 공장들은 가뭄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닌,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정비 시기를 앞당긴 것임
(3.3일 동아일보 「남부 50년만의 최악가뭄, 산단 공장 교대로 스톱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---

1. 보도 내용

□ 남부지방 50년만의 최악가뭄으로, 여수·광양 산단 공장이 교대로 스톱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여수·광양 산단 내 공장들은 **가뭄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닌, 산단 입주기업들이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공장 정비 시기를 앞당긴 것임**

□ **공장 정비는 공장 세부 설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**되며, 공장 정비 시 **공장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**

□ **산업부, 행안부,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'22년 하반기부터 가뭄대책 TF 회의를 진행**하고, **업계와 긴밀히 협의**하여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

□ **정부는** 금번 남부지방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**산단 입주기업**들과 **적극 협력하며 대응**해 나가겠음

※ 문의 : 이영호 입지총괄과장(044-203-4430), 최준혁 사무관(4407)